

인류세의 관점에서 본 2020년의 세계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2020년은, 호주에서 발생한 거대 산불로 그 시작을 알렸다. 털과 가죽이 검게 그을린 채 도로에 내려와 황망한 눈동자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코알라의 표정에서, 우리는 호주 대륙을 휩쓴 불길이 어떤 파괴력을 발휘했는지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피골이 상접한 채, 녹아 깨지는 북극 빙하 조각 위를 헤매는 북극곰의 이미지와 기묘하게 중첩된다.

산불은 방대한 삼림을 태우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몰아내 떠돌다 죽어 가게 하였다.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다. 이는 해수 온도를 상승시켜 극지방 얼음을 녹이고, 풀린 다량의 물이 다시 지구를 광폭하게 떠돌면서 기상 이변을 일으킬 것이다. 코알라와 북극곰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불과 물은 연결되어 있다. 폐부로 들어오는 숨과 허리케인도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어떤 첨단 기구나 로봇으로도, 성령으로도, 예술적 상상력으로도 절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이다.

파국적 재난의 연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모든 것과의 분리 불가능성’이다. 우리의 삶은 다른 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 물질, 원소, 원자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신체와 신체는 서로에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 우리는 방사능, 바이러스, 기온, 바람, 독성물질의 작용처이자 그 매체이다. 우리의 몸은 세계의 몸과 상호-투과적^{inter-permeable}이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들은 지식인도, 전문가도, 학자도, 연구자도 아닌 ‘아무개’이다. 21세기의 참된 주체는 자신의 삶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것으로 아픈 자,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이 문제임을 느끼는 ‘아무개’이다. 아무개들은 사태의 잠재적 피해자이며 행위자이다. 아무개가 된다는 것은, 세계를 공유된 위험 공간으로 인지하는 것과 동시적이다. 아무개의 용기는 그의 두려움에서 나오고, 좌절감에서 나온다. 아무개는 계급, 젠더, 종교, 세대, 인종이 아니다. 선형적으로 규정된 주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다. 선형적 주체성과 사회적 위치가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생태적 감수성의 주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잠재적 주체성이다. 아무개-되기는 21세기의 정치학이다. 아무개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물들과 생물들과 기계들과 무기물들과 함께 지구라는 행성을 만들어가는 존재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년 아무개들은 세계를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이나 창공, 천하天下, 혹은 정신의 대지 같은 것이 아니다. 세계는 불타고, 녹고, 갈라지고, 분쇄되고, 작용하며, 스며드는 무엇으로 감지된다. 대기에 부유하는 미세 입자들이거나, 섭취하여 세포에 흡수되는 동물의 살, 세균이 포함된 흙, 바이러스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비말飛沫이 퍼지는 곳, 사라지는 숲과 멸종이 진행되는 무대로 지각된다. 그것은 이미 피와 뼈에 섞여 있는 신체의 부분이며 호르몬에, 세포에, 체액에 용해된 유동체이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만지고, 바라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의 끈적끈적한 유동체, 점착성 물질이 펼쳐진 오염된 표면과 같은 것. 말하자면, 해변에 유출된 원유를 뒤집어쓰고 무거워진 날개로 안타깝게 고투하는 갈매기처럼, 우리는 세계의 그 끈끈하고 탱탱한 기름 범벅에 붙들린 채 시간의 끝을 불길하게 예감한다.

우리 아무개들에게 사랑이란 아가페도 에로스도 아닌, 그저 이 불길하고 달콤한 점착성 안락과 맹독성 세계로부터 사랑하는 자(우리의 아이들)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아무개에게 악이란, 아렌트가 말한 ‘사유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과도한 사유를 통한 과도한 변형, 과도한 힘, 과도한 행위능력, 과도한 움직임, 어떤 제어장치도 없이 폭주하는 욕망의 과도함 그 자체이다. 검은 원유가 해변에 쏟아지게 된 모든 과정에 협조한 손들이 저지른 죄의 네트워크이다. 우리 아무개가 보는 인간이란 막강한 힘으로 자연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 생존 위기에 빠진 역설적 행위자이다.

인간은 지구와 뒤엉켜버렸다. 자연은 사회와 뒤엉켜버렸다. 우리에게는 초월적 위치도, 객관적 위치도, 실험적 위치도 없다. 우리는 붙들려 있고, 침투당했고, 피폭되었다. 이것이 21세기 파상적破像的 리얼리티의 풍경이다. 이 냉혹하고 초현실적인 ‘생태-존재론적 위급상태’의 이름이 바로 ‘인류세 Anthropocene’이다.¹⁾

인간을 뜻하는 ‘안트로포스Anthropos’와 시간을 뜻하는 ‘카이노스Kainos’를 결합한 신조어인 인류세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 폴 크뤼첸과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가 2000년에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의 뉴스레터에 기고한 짧은 글에 처음 등장한다. 이들은 수온 상승과 수질 산성화로 인해 산호초가 탈색되는 현상을 연구하다가 암석, 물, 대기에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식을 지질학적 시간에 반영해야 할

1) 김홍중. 2019. 「인류세의 사회이론 1. 파국과 패이션시patiency」. 《과학기술학연구》19(3)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 “인간 행위가 지구와 대기에 미친 중요하고 점증하는 영향을 고려해보건대 (...) 지질학과 환경학에서 인류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대를 ‘인류세’라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인류는 수 천 년 동안, 어쩌면 아마다가 몇 백 만년 동안 주요한 지질학적 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²⁾

이들의 제안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과 예술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영역에서 인류세 개념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 논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1,700년을 이어온 홀로세(Holocene)가 끝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저 명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가 닳아 잡힌 듯이 보인다. 2019년 5월 21일, 국제지질학연맹 산하 국제총서위원회에 소속된 인류세 워킹그룹(Anthropocene Working Group)이 중요한 결의를 도출해 낸 것이다. 즉, 34명의 구성원 중 29명이 20세기 중반을 인류세의 기점으로 삼는 데 동의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에는 인구급증, 화학약품 확산 등과 같은 요인들도 포함되지만,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에서 있었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과,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사용 이후 방사능 물질들이 토양과 빙하에 침전되어 명백한 지질학적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것으로 내포되어 있다. 2009년부터 워킹그룹을 이끌어온 영국 레스터대학의 얀 잘라시위츠(Jan Zalasiewicz)는 인류세가 “지질학적인 시간, 과정, 그리고 지층의 단위”이며, 그것은 바로 이전의 지질학적 시대인 홀로세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워킹그룹의 결의는 2021년까지 국제총서위원회에 제안되고, 여러 소위원회를 거쳐 국제지질학연맹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³⁾

“20세기 중반부터 우리는 인류세를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데카르트가 『방법서설』(1637)에서 제시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명제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구 근대문명의 정초 역할을 수행했다. ‘나’는 과학적 사유, 소유적 개인주의, 정치적·법적 자유의 원형적 주체성이다. ‘나’가 과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연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운동을 하고, 혁명을 하고, 발전과 진보와 개발과 식민화와 계몽과 전쟁과 발명을 주도했다. ‘나’가 증기기관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자본주의와 식민지를 경영했다. 데카르트의 ‘나’는 몸이 없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고, 포름알데히드에 중독되지도 않으며, 유전자 변이나, 치매로 기억을 상실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코기코가 상대하는 세계는 수동적이고, 죽어 있고, 그리하여 ‘나’의 의지로 조작할 수 있는 연장체, 즉 ‘자연’이다. 데카르트에게 사물은 정신이 아닌 죽은 덩어리에 불과하다. 대지도, 공기도, 물도 살아 있지 않다. 동물도 식물도 영혼이 없다. 이들을 변형시키는 정신의 권력을 독점한 ‘나’라는 주체성이 바로 인

2) Crutzen P. J. and Stoermer, E. F. (2000), “The ‘Anthropocene’”, Th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IGBP) Newsletter, Vol. 41, p. 17-8

3) 위 내용의 기사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41-5>

류세의 도래를 야기한 ‘인간anthropos’이다. 인류세가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의 집합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서의 인간도 아니고, 인간에 내재하는 본성도 아니다. 지질학적 힘으로 작용한 인간은 근대 자본주의를 이끌어간, 독특한 욕망과 믿음을 가진 ‘주체성’을 지시한다.

1637년으로부터 1945년까지 저 ‘나’들은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것이 인류세 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파괴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은 서구 모더니티의 몽상성을 가차 없이 해체한다. 인류세의 관점에서 보면, 중세의 어둠을 벗어나 계몽주의적 이념을 향한 진보로 기록된 유럽 근대사는 이제 지구 생태계의 파괴의 역사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해방, 자유, 진보의 역사는 말하자면 ‘자본주의-증기기관-석유-탄소-백인-기독교-핵-남근 문명’의 실재를 은폐하고 찬란하게 너울거리던 몽상의 베일로 나타난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주장했듯이, 근대의 전개 속에서 해방/억압, 승리/패배, 안전/위험, 진보/파멸은 혼용되어 있다. 세계는 진보가 아니라 단지 ‘탈바꿈metamorphosis’하고 있다.⁴⁾

인류세라는 관점이 야기하는 과거에 대한 이 해체적 환멸의 시선은, 식민지를 겪고 20세기 중반(인류세가 시작되는 무렵)에야 비로소 모더니티를 꿈꾸며 발전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피식민 민족의 집합 기억에도 적용된다. 가령, 1945년은 한국인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민족의 관점이 아닌 인류세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폭탄의 투하는 20세기부터 21세기로 이어지는 핵 재난의 계열인 ‘히로시마/나가사키-쓰리마일 아일랜드-체르노빌-후쿠시마’ 연속체의 시발점을 이룬다. 민족 해방의 기억은 더 큰 단위의 공동체에 던져진 위협과 정확히 오버랩되어 있다. 인류세가 가져온 충격은 우리가 이제까지 형성시켜 온 역사에 대한 서사적 원리들을 고통스럽게 돌아보게 한다.

요컨대, 인류세는 지질학의 문제인 동시에 정의justice의 문제이다. 가령, “21세기 초반에, 인류 인구집단의 가장 가난한 45%는 탄소배출의 7%를 책임지고 있고, 대신 가장 부유한 7%가 50%의 배출에 책임이 있다(…). 이런 기초적 사실들이 인류를 새로운 지질학적 행위자로 보는 관점과 화해 가능한 것인가?”⁵⁾ 이것은 지구 환경의 위기에 기여한 바에 관한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입장에서 던져지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관점이 존재한다. 분배 정의와 환경 정의가 동시에 고려되는 인류세적 정의의 포괄적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인류세가 요청하는 것은, 존재한 적 없는 미래와의 대면이다. 인간의 손에 인간 자신의 멸종 여부가 달린 전대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파국의 일상화는 2020년의 시점에서 리얼리티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 일상적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급격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다.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2020년의 최대의 화두이다. 경영,

4) Ulrich Beck. 2017. The Metamorphosis of the World. Polity.

5) Malm, A & Homborg, A. 2014. “The Geology for Mankind?”. The Anthropocene Review 1(1), p. 64.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노동, 젠더, 투자, 종교, 복지의 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하는 수많은 논의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나는 아직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를 성급히 예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 사태의 근본 바탕을 좀 더 진지하게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단순한 전염병이 아닌 인류세적 파국의 한 유형으로서의 COVID-19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것처럼, 인류세는 생태적 문제로부터 사회적 삶과 실존적 영역을 횡단적으로 관통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류세의 위기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코로나 이후를 전망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시장을 회복하고, 세계화를 회복하고, 기왕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시 찾아 누리려는 꿈을 꾀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운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가 상상하고 희망하는 방식으로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은 사실 우리가 결코 인류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더 냉철한 인식으로 진화해야 한다.